

직무설명회 Q&A



- **취업 시, 전공/비전공의 차이**

-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 지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까다롭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론 전공과 무관하게 실력, 태도, 역량 등을 두루 평가하여 검토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신입의 경우는 특히 인성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술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 **수료 후 평균 취업 현황**

- 23년 수료생 기준 현재 약 40% 취업(그 중 전공비율 약 28%) / 20대~30대 초반
- 경기가 좋지 않아 신입 채용 비율 축소, 기업의 인재선별 기준이 까다로워진 편입니다.
(최근에는 평균 200~300군데 서류지원하여 그 중 5%정도 면접을 보는 편)

- **요건에 따른 제한 사항 (학력, 연령 등)**
- 기업별 채용요건 상 제한을 두는 기업이 많습니다.(대부분 회사 분위기, 팀 내 조화, 사내기준 등 때문) 신입의 경우 실력이나 기본 스펙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가까운 지원자가 선택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
 - 탄탄한 직무 관련 기초 실력: 아쉬운 부분을 실력으로 채워야 비슷한 위치에서 스타트가 가능합니다. 실력을 쌓아야 서류와 면접에서 할 말이 생기고, 이는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성실한 수업참여, 복습 및 개인학습 노력 필수)
 - 적극적인 서류지원: 남들보다 조금 빨리, 2~3배 더 많이 지원해서 최대한 면접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 **자격증(대표적인 것: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취업이 안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본인의 학습 이해도, 여력에 따라 개인 노력차원에서 부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비전공자라면 직무에 대한 본인의 관심, 노력 어필 차원에서) 자격증은 소지했으나, 실력이 부족한 지원자가 되지 않도록 훈련과정에 충실히 참여합시다!
- 학력 등 요건이 맞지 않아 자격증 준비가 어렵다면 수업, 프로젝트, 복습 등 업무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쌓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실력과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따라옴은 물론, 서류와 면접에서 '할 말' 이 생깁니다. (이러한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물을 노션, 깃허브 등을 활용하여 잘 정리해두면 GOOD!!!)

- 학원 수업, 프로젝트만으로 취업이 될까요?
- 학원에서 다루는 건 기초의 일부입니다. 회사에서도 '학원에서 배운 커리큘럼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신입 역량에는 한계가 있어, 의외로(?) 신입의 실력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물론 기초는 갖추어야 함)
- 학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바로 '일을 한다' 보다, 지금은 회사에서 알려주는 것들을 이해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작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외국어 할 때 귀가 트이는 과정처럼)
- 개인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게 취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발에 '관심'있다면, 어떤 '행동'으로 옮겼는지 중요하므로 프로젝트를 하는 건 좋지만, 그 결과물의 기술적인 내용을 본인이 이해하고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코딩테스트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데, 여러 방식 중 하나가 '코딩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유형도 기업마다 다양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준비 전에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건 지원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숙지입니다. 배운 내용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이해 수준이라면 코딩테스트 준비 전에 기초를 공부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 코딩테스트에선 CS지식, 알고리즘, 자료구조 등의 이해가 필요하고, 다양한 레벨별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ex.프로그래머스, 백준)

- **중견, 대기업군 지원을 희망한다면**
- IT전문 중견 이상급의 회사들은 실력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대부분 코딩테스트 진행, 면접 또한 1, 2차로 하는 등 채용 프로세스가 긴 편입니다. 요즘은 공채보다 상시채용이 많기 때문에, 공고가 뜰 경우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
- 기본 스펙 맞추기: 직무 관련 자격증, CS지식이나 알고리즘 공부, 컴퓨터 전반에 대한 지식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 많이 써보기: 가고 싶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연습이라 생각하고 많이 써보기, 어떤 키워드와 스토리로 본인을 어필할 것인지 틀을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 스터디 참여: 면접스터디 등 혼자보다 여럿이 같이하는 게 좋습니다. (오픈채팅방 활용)

- **수료 후 취업이 많이 되는 시기**

- 수료 후 2~3개월 차에 많이 취업하는 편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운이 더해져 수료 전,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배운 지식에 대한 높은 이해도, 취업의지, 최근 수료생에 대한 기업의 선호 등)
- 연계업체 공고는 수료 한 달 전부터 제공, 개별지원은 프로젝트에서 본인 파트가 마무리 되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직무/기업으로의 취업을 위해선 면접기회를 얻는 게 중요하고, 면접을 보려면 서류를 지원해야 합니다. (수료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시작해보기)
 - 적극 지원했을 때에 본인의 서류통과율을 가늠할 수 있음
 -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분명하고 정확한 건 없음. 면접을 통해 선별하는 눈을 기르자

진행 예정 취업지원 프로세스 (각각 진행 전 별도 공지 예정)



1차 취업특강
(8/25(금) 진행)

- 입사지원서 인성 항목 작성 안내, 서류 피드백

2차 취업특강
(10월 중 예정)

- 입사지원서 기술 항목 작성 안내

취업상담
(11월 중 예정)

- 구직활동 희망요건 확인, 취업 관련 상담, 서류 피드백

수료식

- 취업지원 안내

- **수료 후 취업지원**
- 취업지원기간은 수료 후~6개월 입니다.
- 기본지원: 연계업체 공고제안 및 지원, 입사지원서 클리닉, 회사/면접 정보 제공, 기타 취업 관련 상담 등
- 연계업체 공고는 수료 전부터 제안, 제안한 공고 중 지원의사를 밝힌 기업에 서류지원을 합니다.(교육원에서 기업 측에 서류 발송)
- 서류 합격하여 면접이 잡히면 일정 안내, 면접 후기 및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전달하여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